

서울형 서베이¹⁾를 통해 본 서울시 권역별²⁾ 생활상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 | |
|------------------------|----------------|
| ■ 학력과 소득 | ■ 자기개발의 노력 정도 |
| ■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 | ■ 정보화 능력 정도 |
| ■ 문화 및 스포츠·레저 생활 향유 정도 | ■ 사회봉사활동 참여 정도 |
| ■ 수돗물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 ■ 정책적 시사점 |

학력과 소득

○ 학력 현황

- 서울시의 가구주 학력 평균을 조사한 서울형 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4년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은 31.4%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강남, 서초가 포함된 동남권이 4년제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 29.6%, 도심권 29.4%, 서북권 27.7%, 동북권 25.5%의 순으로 나타남. 동남권과 동북권을 비교하면,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층 구성비는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 소득 현황

- 주거권역별 가구주의 학력 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가구소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되는 가구 구성비를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의 경우 18.7%인 반면, 동북권은 6.6%, 서북권은 7.1%에 불과함. 서울시 전체의 400만원 이상 평균소득 가구 비율은 9.7%임.

1) 서울형 서베이는 서울시 20,000가구, 47,631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생활, 가구상태 등을 포괄하는 서울시의 도시사회정책지표에 관한 조사임. 서울형 서베이는 2003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년 서울형 서베이를 실시할 계획임. 서울형 서베이의 서울시 주관부서는 정보화기획단임.

2) 서울은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의 5개 대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는 아래와 같음.
 도심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남권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남권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

- 서울시 전체의 주거환경만족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53.7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권역별로 차이를 보임.
- 동남권이 62.1점으로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평점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평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임. 반면 서북권의 경우 주거환경만족도 평균평점이 50.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교육환경 만족도

- 서울시 전체의 교육환경 만족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50.8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 또한 권역별로 차이를 보임.
- 동남권이 60.8점으로 교육환경만족도 평균평점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 평균평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임. 반면 도심권은 교육환경만족도 평균평점이 4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척도 중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권역별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삶의 질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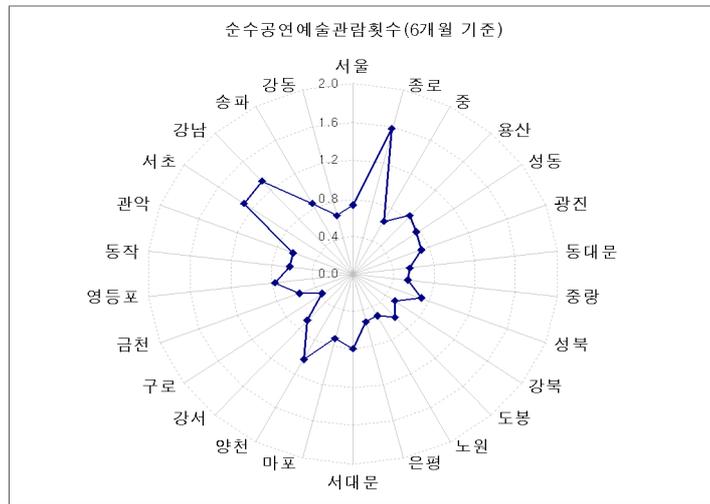
<표1> 권역별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만족도 (100점 만점 기준)

항목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주거환경만족도	53.7 점	53.2 점	62.1 점	52.2 점	50.7 점	51.2 점
교육환경만족도	50.8 점	47.5 점	60.8 점	48.6 점	49.1 점	48.1 점

문화 및 스포츠·레저 생활 향유 정도

○ 순수공연예술 관람 횟수

- 지난 6개월간 음악, 연극, 오페라, 뮤지컬, 미술관, 무용 등 순수공연예술 관람 횟수는 서울시 평균이 0.7회임(1년에 1회 정도 관람한다는 의미임).
- 구별로는 종로 1.6회, 강남 1.3회, 서초 1.3회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구로는 0.37회, 노원과 강북은 0.51회로 낮게 나타남.



○ 영화관람 횟수

- 200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민이 지난 6개월간 영화관을 방문한 평균횟수는 3.14회로 나타남. 즉, 2개월에 한번씩은 영화관을 가는 것으로 나타남. 대중영화 관람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평균 4.62회이며, 중구 3.89회, 서초 3.84회, 양천 3.78회 순으로 높음. 한편 동북권은 강북 2.38회, 도봉 2.34회, 노원 2.41회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스포츠·레저 활동을

- 점차 스포츠·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이 지난 한해동안 수영, 등산, 헬스클럽, 여행 등 스포츠 레저활동을 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서울시민의 63%가 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2%로 가장 높고, 서남권은 62%, 서북권과 동북권은 60%임. 구별로는 서초(80%), 강남(79%)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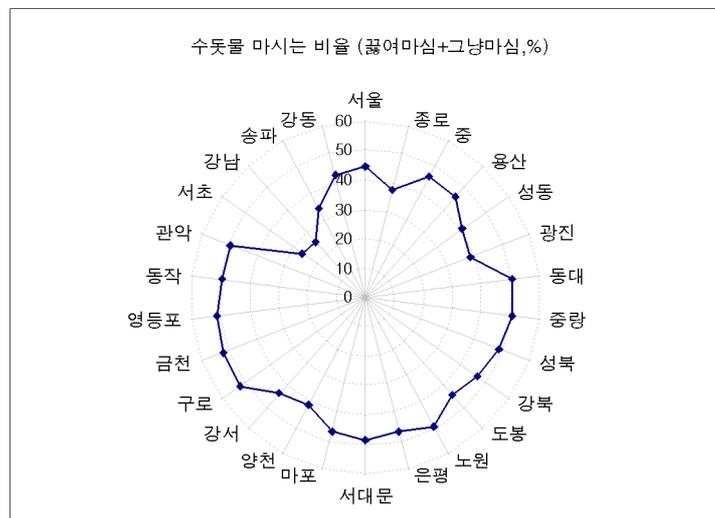
<표 2> 권역별 문화생활 향유 현황

항목	서울시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문화생활(미술관)	0.32회	0.44회	0.26회	0.44회	0.30회	0.29회
문화생활(공연장)	0.41회	0.54회	0.35회	0.57회	0.37회	0.37회
문화생활(대중음악)	0.13회	0.17회	0.12회	0.17회	0.12회	0.13회
문화생활(영화관)	3.14회	3.24회	2.81회	3.79회	2.93회	3.15회
문화생활(스포츠경기)	0.28회	0.29회	0.26회	0.35회	0.28회	0.26회
스포츠레저활동	63%	63%	60%	72%	60%	62%

수돗물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 수돗물에 대한 인식 - 음용비율

-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은 동남권의 경우 31.7%로 가장 낮았으며, 서북권과 서남권 등은 47%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
- 구별로 보면 강남이 25.3%, 서초가 26.1%로 가장 낮고, 구로, 금천이 52%, 동대문, 중랑이 51%로 상대적으로 높음.



○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상품 관심도

- 상품 구입 시 그 상품이 환경친화적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상품 관심도 평균평점은 서울시 전체가 10점 만점에 6.2점으로 환경상품 여부에 대한 보통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별로 환경상품 관심도 평균을 보면 강남 6.57점, 서초 6.49점, 용산 6.34점, 양천 6.31점의 순으로 높으며, 금천은 5.78점, 중랑은 5.8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관심을 보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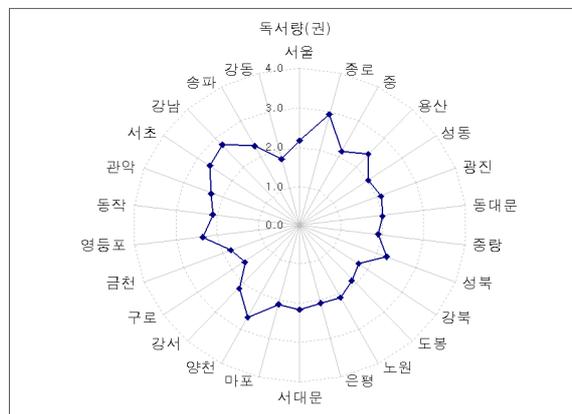
<표 3> 권역별 환경상품 관심도

항목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환경상품 관심도	6.16 점	6.24 점	6.37 점	6.06 점	6.21 점	6.09 점

자기개발의 노력 정도

○ 독서량

-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량을 보면 서울시 전체의 교양서적 독서량이 한달 2.16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남권 주민의 독서량은 평균 2.37권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 주민은 1.99권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동남권에서는 강남이 2.76권, 서초가 2.63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동북권의 강북은 1.73권으로 가장 낮음.
- 업무관련 서적의 경우 동남권이 1.08권으로 가장 높고, 동북권이 0.73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남권에서도 서초가 1.52권, 강남이 1.30권으로 가장 높으며, 중랑은 0.6권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4> 구별 한달평균 독서량

지 역	한달 평균 독서량		
	교양서적	업무관련 서적	잡지
서울시	2.16	0.86	1.27
도심권 전체 종로 중 용산	2.50	0.88	1.50
	2.92	1.06	1.89
	2.12	0.67	1.39
	2.47	0.90	1.32
동북권 전체 성동 광진 대문 중량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99	0.73	1.12
	2.00	0.72	1.40
	2.09	1.07	1.18
	1.97	0.64	1.01
	1.87	0.60	0.96
	2.22	0.78	1.17
	1.73	0.66	1.03
	1.87	0.78	1.06
2.08	0.66	1.13	
서북권 전체 은평 서대문 마포	2.10	0.80	1.15
	2.05	0.77	1.03
	2.15	0.89	1.25
	2.10	0.75	1.18
서남권 전체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2.17	0.88	1.25
	2.67	1.24	1.41
	2.17	0.86	1.38
	1.60	0.53	0.84
	1.76	0.78	1.04
	2.36	1.01	1.27
	2.07	0.76	1.14
	2.29	0.88	1.43
동남권 전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37	1.08	1.58
	2.63	1.52	2.09
	2.76	1.30	1.89
	2.30	0.96	1.40
	1.76	0.62	1.01

○ 건강관리 정도

- 서울시민 전체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비율은 79.3%로 나타난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동남권 주민은 83.7%, 가장 낮은 동북권 주민은 77.0%로 지역간 차이를 보임.
- 동남권에서는 서초, 강남이 86%로 가장 높고, 동북권에서는 노원이 74%, 성북이 74%로 상대적으로 낮음. 서남권에서는 양천이 83%로 높고, 구로가 73%로 낮음.

○ 외국어 구사력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차이를 보면, 동남권 주민들은 10점 만점에 4.56점으로 어느 정도 기초회화가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북권 주민들은 3.87점으로 거의 기초회화를 못하는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나타남. 서울시 전체 평균평점은 4.08점임.

○ 권역별 자기개발 노력 (종합)

- 자기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동남권 주민은 10명 중 8~9명 정도가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며(건강관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비율이 83.6%), 한달평균 교양서적을 2.37권 읽으며, 업무관련 서적은 1.08권, 잡지는 1.58권 읽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남권의 흡연률은 서울시 5개 권역 중 가장 낮은 21.6%이며, 외국어 구사수준은 4.56점으로 길안내 등 기초적인 회화가 가능한 수준임.
- 자기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동북권 주민의 건강관리 비율은 76%이며, 교양서적 독서량은 한달 평균 1.99권, 업무관련 서적 독서량은 0.73권, 잡지는 1.12권을 읽고 있으며, 흡연율은 24.1%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은 3.87점으로 기초적인 회화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구사력을 보임.

<표 5> 권역별 자기개발 노력 현황

항목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건강관리비율	79.3%	80.0%	83.7%	77.0%	80.1%	78.4%
교양서적	2.16권	2.50권	2.37권	1.99권	2.10권	2.17권
업무관련 서적	0.86권	0.88권	1.08권	0.73권	0.80권	0.88권
잡지	1.27권	1.50권	1.58권	1.12권	1.15권	1.25권
영어구사력	4.08점	4.20점	4.56점	3.87점	3.99점	4.02점
흡연률	22.9%	22.9%	21.6%	24.1%	22.6%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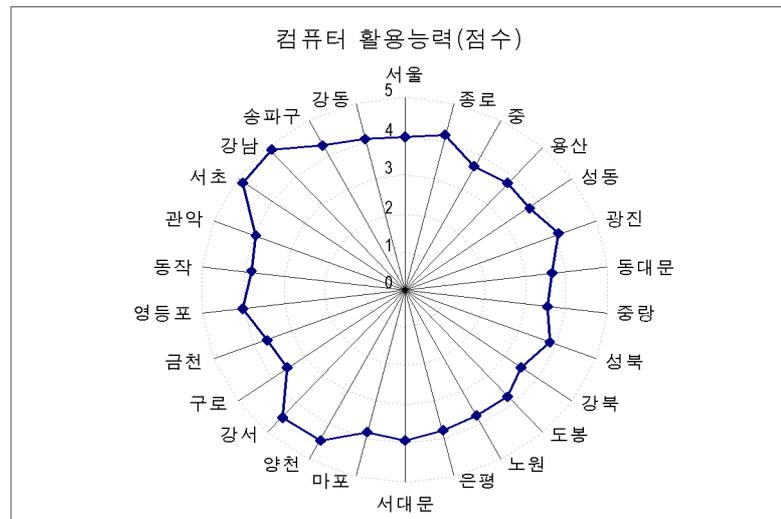
정보화 능력 정도

○ 정보인프라 : PC 보급률

- 서울시 가구당 PC 보급률이 85%로 나타난 가운데, 서초구가 94%, 강남, 종로, 송파가 91%로 가장 높으며, 구로, 노원이 7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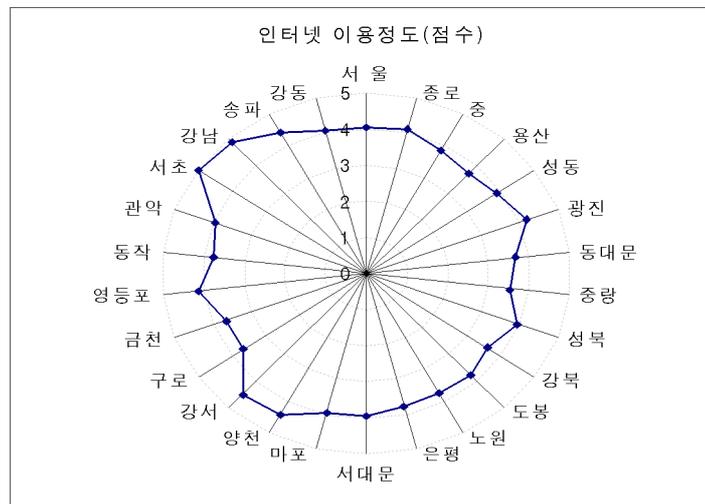
○ 컴퓨터 활용능력

-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느냐를 알아본 컴퓨터 활용능력에서 서울시 전체 평균이 10점 만점에 3.96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 주민의 평균 컴퓨터 활용 능력이 4.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동남권 중 강남구 4.87점, 서초구 4.81점 순으로 높음), 서남권 주민의 평균은 4.0점이었음. 반면 동북권의 경우 3.6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시 인터넷 사용자 수가 1999년에는 147만 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623만 여명으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역시 동 기간동안 1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는 질적 성장은 1999년 대비 1.2배 정도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능력

- 이러한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능력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동남권과 서남권은 일상생활 인터넷 활용능력이 가장 높은 반면에(10점 만점에 서초 5.0점, 강남 4.9점, 송파 4.4점임), 동북권은 평균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이 가장 낮음(중랑과 강북 모두 3.6점임).



사회봉사활동 참여 정도

○ 자원봉사 참여율

-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동남권에서 16.8%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에서는 13.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서울시민 전체의 평균참여율은 15.0%로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활동경험자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원봉사참여율이 높은 구는 양천구(19.5%), 서초구(19.0%), 중구(18.5%), 강남구(18.4%) 등임.

<표 6> 권역별 자원봉사 활동율

항목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자원봉사 활동율	15.0 %	16.4 %	16.8 %	13.3 %	15.5 %	15.1 %

○ 사회적 기부 경험

- 서울시민 10명 중 3~4명 정도인 33.5%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기부의 경험이 있는데 기부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부형태는 ARS, 현금직접 지원, 온라인/지로송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부 경험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37.5%로 기부경험률이 가장 높고, 서북권 34.6%, 서남권 33.5%, 동북권 30.4%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구별로는 강남 41.2%, 서초 40.1%, 양천 40.0%의 순으로 높으며, 강북과 성북은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부경험률을 보임.

정책적 시사점

- 1970년대 강남개발 이후 서울은 이른바 풍요를 상징하는 강남권과 정체된 공간으로서의 강북권으로 구분되어 있음. 서울시민들은 동질적인 서울시민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이지 않고 구별 특화된 소속감을 느끼고 있음. 예를 들어 강남구민은 구민(區民)적 정체성이 서울시민의 정체성에 우선하며, 이는 서울의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현상임. 서울형 서베이를 통해 이러한 지역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됨.
- 따라서 각 구에서는 격차의 현황을 제대로 인지하여 각 구에 적합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입안을 하여야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포괄적 정책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요함. 특히,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의 도심 부활과 청계천 복원을 통한 생태지향적 강북 발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303
miree21@sdi.re.kr

강영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1
ykang@sdi.re.kr